

SPECIAL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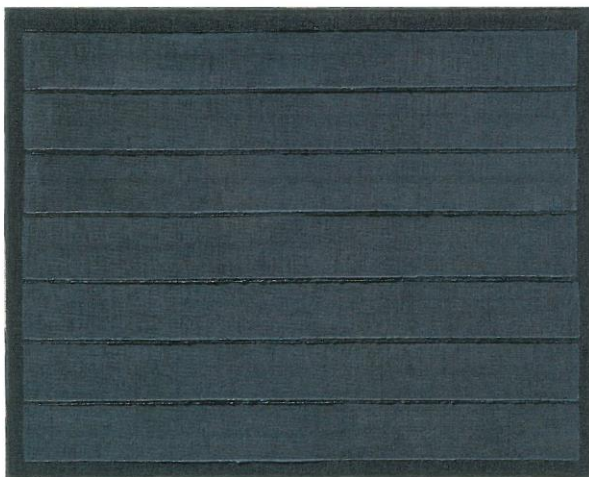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하종현

Ha Chong-Hyun / b. 1935

홍익대 회화과 졸업 **Solo Exhibitions** 뉴욕 티나킴갤러리(2015), 국제갤러리(2015), 뉴욕 블룸엔포갤러리(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2) 등
Group Exhibitions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Dansaekhwa)(2015), <Avant Garde Asia: Lines of Korean Masters>(소더비홍콩갤러리 2015), <단색화의 예술>(국제갤러리 2014) 등 **Awards** 대한민국 미술인상(2010), 은관문화훈장(2009), 프랑스로화훈장(2007), 옥조근정훈장(2000) 등 **Current Post** 홍익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Address** ha35@hanmail.net



회화의 물질성을 향한 끝없는 탐구 하종현에게 모든 발상의 가치는 어느 정도 그 잠재성이 소진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초기 접합 작업에 사용된 하얀색 물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물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던 것을 떠올린 하종현은 <이후접합 2011-5>에서는 매우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면서 각각의 색상이 다른 색상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물질성을 지니고 있는지 실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 무렵부터 하종현은 캔버스 뒷면에서 물감을 밀어 넣는 독특한 기법에 한 단계를 더 추가했다. 나무 막대기 끝을 면포로 감싼 후 그것에 불을 붙여 태운다. 여기서 나온 까맣게 탄 가루를 미리 하얀색 물감을 먹여 놓은 화폭의 앞면 전체에 바른다. 이렇게 일단 표면을 검댕으로 덮은 후 그것을 다시 긁어 내 여러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 낸다. 별로 특이할 게 없어서 음영처럼 보이는 이 회화색은 삭막한 하얀색 띠를 부각시킬 만큼 어둡긴 하지만 명도 대비가 회화의 주제가 될 정도로 어둡지는 않다. 여기저기로 뿔어나가는 호기심을 지닌 하종현, 그의 작업은 미술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 유쾌하게 뒤섞인 결과일 것이다. 분명 그의 작업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추상의 도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생산적인 불만족을 하종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가 끝없이 방랑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그가 타성에 젖어 관람자들로부터 불확실성의 기쁨을 박탈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목적지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아갈 길은 언제나 명확했다. / 조앤 기(미시간대 교수)

위 · <접합 14-5> 마포에 유채 73×92cm 2014

아래 · <접합 15-04> 마포에 유채 194×259cm 2015